

## 감천문화마을, 세계가 주목했다!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세계 3대 우수 교육도시에 선정  
괴정 회화나무 샘터공원은 워크숍 우수사례 선정 '겹경사'**



▲ 2016. 6. 4 세계우수교육도시상 수여



▲ 감천문화마을 사례 이경훈 구청장 발표

부산 사하구(구청장 이경훈)가 세계 3대 우수교육도시로 선정되었다.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은 사하구(대한민국), 에스포(핀란드), 로스피탈레트 데 요브레가트(스페인)를 '제1회 우수교육도시상' 수상도시로 결정·발표했다.

국제교육도시연합은 도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교육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자는 취지로 1994년 만들어진 세계연합이다. 세계 36개국 471개 도시가 회원도시로 가입되어 있으며, 6월1일에서 4일까지 열린 이번 제14회 세계총회에는 113개국에서 1,2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우수교육도시상'은 '더불어 함께 사는 도시'라는 제14회 세계총회 주제에 부합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 시책을 펼친 도시에 주어진다. '감천문화마을'은 한국전쟁 당시 집단이주로 형성된 피난민들의 힘든 삶의 터전을 예술가, 주민, 전문가, 행정이 힘을 모아 '보존과 재생'이

라는 패러다임 아래 공동체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그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문화와 예술을 가미한 생활친화적인 방식으로 활기찬 마을로의 창조적 재생을 이루어 냈으로써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IAEC사무국은 "문화와 예술로 가난한 마을을 재건한 감천문화마을 프로젝트는 마을 원래의 모습과 역사적 가치를 지키면서 주민들의 연대감과 소속감을 이끌어내 다른 도시들에 큰 영감을 줬다."라고 수상 도시의 선정 배경을 밝혔다. 앞으로 IAEC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수 사례로 홍보되고 벤치마킹을 위한 회원도시들의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총회 워크숍에서 '괴정 회화나무 샘터공원'은 사례를 신청한 250개 도시 가운데 최종 선정된 60개 도시에 포함되어 도시 건설의 문제(물리적 공간, 시설의 재창조) 분야의 발표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괴정 회화나무 샘터공원은 수령 650여년의 회화나무와 통샘, 빨래터를 지니고 있지만 개발의 물결 속에 잊혀

져가고 있는 도시 공원을 예전의 모습으로 복원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부산시 아름다운 조경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하구의 명소 2군데가 총회에서 각각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아 이경훈 구청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감천문화마을'과 '괴정 회화나무 샘터공원'을 소개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사람들이 떠나가는 마을에서,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마을로 변화시킨 부분에서 청중의 기립박수가 터져나오는 등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또한 이경훈 구청장은 세계 교육도시 대표 7인을 초청하여 포럼형식으로 진행된 시장단 월탁회의에 정식으로 초청받아 참가하여 더불어 사는 공간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하구의 7가지 어젠다를 제시하고, 개인 및 문화적 차이가 인정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행중인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등 아시아 태평양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의 사하구의 위상을 드높였다.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



## 다문화가정 문화공유 프로젝트!

부산시 16개 구·군 중 사하구의 결혼이주여성의 수는 1,312명(15. 1월 기준)으로 1위이고, 해가 갈수록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다국적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사하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문화에 오롯이 융화되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알찬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 프로젝트는 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의 전통 된장, 고추장, 장아찌 담그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도전! 한국의 맛!', 결혼이주여성이 강사가 되어 본국의 전통 요리를 알려주는 '도전! 세계의 맛!', 재활용품을 활용한 수납정리 방법을 배우는 '똑똑한 리사이클 수납법', 경주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보고 느끼는 '더불어 함께 문화체험'이 그것이다.



## 한국생활 너무너무 행복해요

### 다문화가족 경주 신라 밀레니엄 파크를 가다

사하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5월 13일 다문화 가족이 손에 손 잡고 경주 신라 밀레니엄 파크로 소풍을 다녀왔다. 기자는 다문화 13가족들의 의미있는 시간을 사진에 담아 드리기 위해 재능나눔으로 동행했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개구쟁이 아이들 모습과 엄마 아빠들의 들뜬 모습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가족 모습이었다. 그만큼 한국생활이 익숙해졌다는 얘기이다. 다문화 가족들은 이번 행사에 초대되어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자기소개를 했다.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모로코에서 온 분들이 참여했다.

10시30분, 경주밀레니엄 파크에 도착하여 단체사진과 가족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워터볼 체험을 했다. 워터볼을 굴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신혼부부는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주었다.

오후에는 '천궤의 비밀' 애와공연을 관람했다. 신라 진지왕 때 화랑 미시랑이 하늘에서 내린 3가지보물(보물상자, 검, 갑옷) 이야기가 펼쳐졌다. 칼싸움이 벌어지고 미시랑이 나라를 구하자 무대에서 물분수가 하늘 높이 솟았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공연속으로 푹 빠져들었다. 다문화가족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만나는 순간이기도 했다. 돌아오는 버스에서는 간단한 소감 발표가 이어졌다. "아이들이랑 함께 해서 좋았어요. 한국의 옛 문화를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다음에는 해인사, 불국사

도 가고 싶어요."라는 소감이 대부분이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이동아씨(48세)는 2014년 10월에 결혼한 베트남신부와 6개월 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나이 들어 결혼을 하고 아들과 심장을 마주하며 걸었던 시간들은 감동스러웠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족들이 한국문화를 알고 한국생활을 잘 적응하도록 돕자는 의미에서 기획되었다. 한 번의 소풍으로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앞으로 시간을 내어 다양한 한국문화를 찾아나녀보기로 마음 먹은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선생님은 지속적인 상담이 아주 여성의 한국생활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상적인 상담이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교육담당 선생님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어와 영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는 많지만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몰라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한국어 교실이나 컴퓨터 활용 교육이 더 확대되어 결혼 이주여성의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다문화가족의 행복했던 경주 나들이를 다시 한 번 떠 올리며 모든 다문화가족들이 밝은 모습으로 잘 살아 나가길 기원한다. 그 마음을 담아 기자가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그들에게 선물했다. 다문화가족 사랑해요.

**손현아** 평생학습 구민기자  
ssnyen@hanmail.net



## 독자 의견

### 사하배움마당에 바란다

사하구 평생학습신문 '사하배움마당'이 3월 20일 청간호를 발행했다. 독자들은 기사내용 중 '배우고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와 평생학습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주민 이야기에 좋은 평가를 해주었다.

반면 별별, 나이별, 강좌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배포에 신경 써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았다. 전문 기자가 아닌 사하구민들이 처음 발행한 신문이라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사하배움마당' 청간호를 본 독자들의 여론 의견을 반영해 더욱 성장하는 신문이 되도록 애쓰겠다.

**김돌이 (하단동 43세)** K-moooc 온라인 강좌가 있다는 것을 사하배움마당 신문을 읽고 알게 되었고, 앞으로 좋

은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안소영 (당리동 50세)** 사하구민기가 만드는 신문이라 더욱 멋지고 일반인들에게 사하구 평생학습교육을 알려주기 위해 취재하는 사하구민기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두혜진 (다대동 43세)** 사하구내 작은 도서관과 지역주민센터에서 하는 강좌나 행사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알려주었으면 한다. 지난 청간호 기사에는 날짜가 지나 버려 도움이 안 되는 기사도 있었다.

**하정화 (서구 48세)** 사하구 주민들에게 평생 학습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사하배움마당' 신문이 부산 여러 지역에 흥보되어 타 구민들도 같이 기사 내용을 공유하고 싶다.

**이선정 (당리동 39세)** 사하구민들이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사하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습의 장을 생생하게 전해주길 바란다.

김현진 평생학습 구민기자  
titatla20@hanmail.net



## 도전! 세계의 맛' 소통 맛도 좋아요

### 가족끼리 요리도 하고 다양한 문화도 느끼고



#### 탁탁타닥탁

엄마의 돼지고기 다지는 경쾌한 소리.

#### 다악다악다악

요리사가 꿈인 아들의 처음 해 보는 칼 솜씨

#### 티악타악타악

눈물 흘리며 아빠가 양파 써는 소리

신평 1동 농협 2층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베트남 전통 요리 '짜조' 만들기에 열중하는 가족들이 만들어 내는 소리이다.

사하구는 결혼이주여성과 주민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도전! 세계의 맛' 강좌를 개설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은 강사가 되어 모국의 전통요리를 소개하고 주민들은 가족과 함께 세계의 요리를 체험하는 문화공유 프로그램이다.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4번에 걸쳐 짜조 만들기뿐만 아니라, 중국 전통 만두, 캄보디아의 롤락, 필리핀의 반식 만들기도 큰 호응 속에 진행되었다.

사하구 주민 중 온라인으로 빠르게 접수를 한 일곱 팀의 가족은 강사의 친절한 설명에 따라 '짜조' 요리를 시작했다. 칼을 처음 사용해 보는 남자 아이는 부드러운 숙주와 물에 불린 당면의 촉감이 좋은지 만지작거리며 문지르듯이 자른다. 아빠는 매운 양파와 딱한 당근을 긁직긁직하게 채 썰고 있다. 잘게 썬 표고버섯과 모든 재료들을 소금 달걀 설탕 후추를 넣고 버무려야 하는데 남자 아이는 힘주어 문지르고 있다. 버무린 소 재료는 물에 적신 라이스페이퍼에 얹는다. 순가락으로 떠 넣는 양이 많아 옆으로 빼죽 나와 다시 싸기를 반복하면서도 웃음소리가 끊이

지 않았다. 유치원생 여자아이는 잘 달구어진 기름에 라이스페이퍼를 쑥 넣었는데 기름이 튀어 올라 깜짝 놀라 멀리 달아나기도 하였다. 완성된 짜조는 물, 액젓, 설탕, 식초, 마늘 다진 것, 청 고추, 레몬을 넣은 소스에 찍어 먹는다. 요리사가 장래 희망이라고 말하는 아들도 평소에 요리에 관심없던 아빠도 다른 나라의 전통음식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는 사실이 뿐만 아니라 엄지를 칙 들어보였다. 음식 이름이 낯설어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해 보니 쉽고 재미있었다 한다.

진희영 강사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결혼 이주해 온 여성이다. 한국 온 지 5년 되었는데 3년 전 한국국적 취득 후 한국 이름으로 바꾸었다. 요리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강사로 참여하여 모국의 요리를 이웃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좋았다 한다. 그 외 일곱 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요리 도우미로 1조에 1명씩 배치되어 함께 하였다. 기름을 가득 넣고 라이스페이퍼를 튀겨내는 줄 알았는데 기름은 반쯤 담길 정도로 붓고 불을 낮추어 서서히 조립하듯이 하면 된다고 가르쳐주었다. 앞으로 이렇게 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도전! 세계의 맛'은 다문화 가정 여성의 지역민과 어울리고 요리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의미 있는 문화 공유 프로그램이었다. 요리하며 가족끼리 소통하는 일은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다.

**하숙자** 평생학습 구민기자  
ssaksil@hanmail.net

#### 배달강좌

### 학습자가 원하는 곳 어디든 사하구 평생학습이 찾아갑니다!

구민이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원하는 내용의 강좌를 신청하면, 강사를 파견하여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행복을 전해 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16. 7. 4(월) ~ 7. 17(일)
- **운영기간 :** 2016. 8. 16(화) ~ 11. 30(수)
- **신청방법 :** 인터넷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http://lil.saha.go.kr>) → 교육정보 → 행복가득 배달강좌 → 배달강좌 신청  
방문 사하구 평생학습과 (☎ 220-4806)
- **신청조건 :** 사하구민(성인) 7인 이상으로 구성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득한 수강장소를 사전확보  
(제외장소 : 강사 개인연습소, 사설근무지, 학원, 종교시설 등)
- **강좌구성 :** 내용 학습이 가능한 모든 분야  
(제외 : 자녀학습/어학/종교/정치/영리/친목/여행/합창 등)  
**횟수** 5회 이상, 10회 이하 ▷ 1회당 2시간 수업

※ 강사는 구청에서 선정한 강사를 파견합니다. (지정 강사 신청 불가)

‘우당탕 창의 공작소’는 4세 아이를 둔 이미영 씨(43세)의 꿈이 자라는 곳이다. 이미영 씨는 그녀가 살고 있는 하단2동 아파트에서 6세 이상의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홈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홈스쿨에서는 선물포장, 리본공예, 쿠키클레이, 소이캔들 등 토탈공예 강좌가 월 4회 진행된다. 그리기도 서툰 아이들이 자신들의 리본을 직접 만들고,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장식하여 쿠키를 구워내면서 환호성을 지른다. 이미영 씨는 “토탈공예는 창의력을 높일 뿐 아니라 집중력과 자신감을 갖게 하고 오감 발달 놀이로 소근육 운동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좋습니다.”라고 말한다. “모든 토탈공예 작업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요. 쿠키클레이는 특별히 재료에 신경을 쓰고요. 우리밀을 사용하는 건 물론이고 유기농과 천연 재료를 꼼꼼하게 따져서 직접 고르지요.” 기준 획일적인 미술학원과 차별화된 수업을 도입하려는 소신도 다부지다.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고 난 후 이루어지는 성인만의 호응도 뜨겁다. 토탈공예 작업도 작업이지만 육아와 교육, 고민상담도 나누는 사랑방 역할도 한다. 그녀는 인테리어 회사에 다녔으나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다. 임신 중에 시간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관심 있게 찾았다. 그때 접하게

## 아름다운 그대 “육아와 일, 모두 소중해요” 평생학습으로 공방 창업한 이미영 씨



된 것이 2012년 하반기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강좌를 연 ‘선물포장 자격증’반이었다. 그녀는 만삭의 몸으로 대구까지 가서 2급 자격증 시험을 치를 만큼 열성학생이었다. 출산으로 1급 시험에는 도전하지 못했다. 출산 후 결혼 전 다니던 인테리어 회사에 복직했으나 육아문제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육아에 전념하는 틈틈이 선물 포장에 그치지 않고 리본공예와 쿠키클레이에도 관심을 갖고 공부했다. 2015년 8월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지인과 학장동에 작은 공방을 창업했다. “수제의 이점을 십분 발휘하여 맞춤제작

을 하니 입소문도 나고 고객도 생겼어요.” 기억나는 고객은 유난히 머리숱이 적은 딸아이의 엄마다. 머리숱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만들어준 머리핀이 마음에 들어서 고객이 되었다. 엄마들의 반응이 좋아서 특강 형식의 만들기 강의도 하고 있다. 아직 아이가 엄마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나이라 공방에는 주제 정도로 나가는 대신 지난 5월 홈스쿨 ‘우당탕 창의 공작소’를 열었다.

이미영 씨는 아직도 공부중이다. 전문적인 만들기 지식을 위해 미술학원에도 다니고 있다. ‘선물포장 자격증’반을 수료하면서 결성

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보다 창의적인 선물포장 방법을 공유하고 봉사활동도 한다. 자연드림을 통해 배움을 필요로 하는 마을모임에 강사로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그녀는 공방창업에 대해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쉽게 창업을 생각한 것 같아요. 공예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서로 잘 접목하면 개성 있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지요. 기본기법에 여러 가지 조화를 생각할 수 있는 미적 감각이 있다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상품화 할 수 있으니 시장도 크다고 생각해요.”라고 덧붙인다. 그녀는 육아문제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지만 이 방향전환점에 사하 평생학습관의 ‘선물포장 자격증’반이 있음을 감사한다. 육아를 병행하면서 공방과 홈스쿨이라는 자신의 일이 있고 월 백 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지금의 생활에 만족한다. 그러나 그녀의 꿈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녀는 공방과 홈스쿨, 강사의 수입을 모아 그녀만의 특별한 공방을 계획하고 있다.

육아와 창업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뛰어가는 그녀의 꿈이 곧 당면한 젊은 여성들의 꿈이기에 더욱 힘찬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미성** 평생학습 구민기자  
merrygold2971@hanmail.net

## 평생학습도 학(學)테크 시대

평생학습 이력을 관리하는 ‘평생학습 계좌제’가 운영되고 있다. 평생학습계좌제는 온라인상에 자신의 학습계좌를 개설하여 평생학습이력을 관리하면서 활용방안을 설계하는 일종의 ‘학(學)테크’이다. 쉽게 말해 개인별 평생학습종합이력부라고 할 수 있다.

개설된 계좌에는 초, 중, 고등학교, 대학 등 학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경력사항, 자격취득사항을 담아 둘 수 있다. 또 봉사활동, 저서, 수상실적 등 개인의 모든 이력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이

력을 담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나의 학습이력을 취창업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학습이력을 진단·분석하여 향후 학습방향을 설계할 수도 있다.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가입부터 출력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평생학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주민은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www.all.go.kr)에서 개설하면 된다.

임미정 평생학습 구민기자  
immejkr@naver.com

### 학습이력 >>> 학습이력관리시스템(학습계좌) >>> 학습결과 활용

학습계좌 개설/학습이력(마일리지)누적



## ..... 어르신들의 유쾌한 동행자 .....

### 실버놀이로 치매 예방 · 건강 검진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 치매 증가는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치매 환자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노인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한 평생학습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뇌 건강 100세 지킴이’ 동아리는 2015년 3월 사하 실버 및 장립 실버 동아리와 기타 실버 놀이지도자 교육을 받고 활동하던 회원

들로 구성되었다. 치매 예방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이들은 사하구 보건소가 실시한 치매 관련 교육 수료 뒤 34명이 모여 결성한 것이다. 주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와 봉사활동자의 결합은 금상첨화 격으로 치매 예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뇌 건강 100세 지킴이는 사랑채 복지관 치매 간이 검사를 비롯해 53개소 노인 관련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노인정을 찾아가 진행하는 치매 예방 활동은 체조, 게임, 놀이, 검사로 진행하는데 모두 무료이다. 2015년에는 총 55개소를 찾아가 4천 명이 넘는 인원을 대상으로 활동했고 그 결과 2015년 보건 복지부의 우수 사례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치매 관련 문의는 보건소 (220-5735, 5784), 부산광역시 광역 치매센터(240-2560~5),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 치매노인 실종신고는 112로 하면 된다. ‘뇌 건강 100세 지킴이’와 함께 치매 예방 봉사를 함께 하고 싶은 분은 정명순 회장(010-3333-3899)에게 문의하면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치매 없는 사하구를 위하여!

**김근호** 평생학습 구민기자  
armbong@naver.com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지난 6월 2일 당리동 청림요양병원 3층 다목적홀에서는 '돌목 우쿨렐레'의 연주와 노래에 맞춰 할머니들이 부르시는 '오빠 생각'이 울려퍼졌다. 돌목 우쿨렐레는 다대2동 주민센터가 주최한 우쿨렐레 강좌의 수강생 11명이 봉사하며 기쁨을 얻는 평생학습 동아리다. 매월 둘째 목요일에 만나 연주계획을 잡고, 지속적으로 연습한다는 뜻에서 돌목 우쿨렐레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이들은 '음악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마음으로 똘똘 뭉쳤다.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우쿠

### 합주로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쓸모없는 것을 가치있게 만드는 에코음악단



낙동강문화관은 토요일마다 악기와 함께하는 '에코음악단'을 운영한다. 에코음악단은 버려지는 재활용 물품을 훌륭한 악기로 변신시켜 합주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팀별로 악기를 제작하고 그에 관한 이야기도 만들고 합주도 한다. 아이들은 버려지는 물건을 악기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에서 물건의 소중함도 느끼고 창의적으로 재해석 할 수도 있다.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에코음악단은 을숙도에 있는 낙동강문화관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열린다. 초등 1~3학년이 참여 한다. 낙동강문화관을 찾는 주연령대가 유초등인 것을 감안해 초등저학년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1기부터 3기까지 기수 당 25명씩 참여할 수 있고 10회에 걸쳐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수강생들은 재활용 악기를 만들어보고 바디퍼커션(손뼉을 치거나 몸을 두드려서 타악기 소리를 내는 것)도 배운다. 특별한 악기로 만들어내는 합주도 잊지 못할 경험을 만들어준다. 마지막 수업에는 작은 공연도 펼친다고 하니 귀와 눈과 몸이 즐거운 오감만족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다.

강사들은 실제 음악극을 전문으로 하는 (주)문화홍보소와 음악극단콩나물(주) 소속의 작곡가와 극단원이 맡았다. 현재 1기는 끝났고 2기는 6월 25일부터, 3기는 9월 1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희망자는 전화 292-1042 또는 카페 <http://cafe.daum.net/nakdongculture>로 신청하면 된다.

### 동아리 활동할 공간이 없다고요?

낙동관 문화관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김정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

## 동아리 톡톡 음악으로 꿈꾸는 행복한 세상 둘째 목요일마다 연습하는 둘목 우쿨렐레



렐레를 수강하면서 만나게 된 회원들은 그 해 10월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열린 주민자치 동아리 발표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두송음악회, 행복 보드미 축제, 다대복지관 행사 등 크고 작은 지역사회 행사에도 참여하였고, 매월 첫째 목요일 자체 연주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올해 1월 연주 봉사를 시작할 때에는 5~6명의 어르신들만 참석하였다는데 이제는 우쿨렐레 연주와 노랫소리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30명이 넘는다고 한다. 매달 연주 봉사를 위해 연습장소를 마련하고 시간을 조개 연습하느라 바쁜 동아리 회원들에게 음악을 듣고 즐겨주는 관객들은 동아리를 이

어가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다. "저희들의 작은 정성이 어르신들에게 잠시라도 위안과 행복을 안겨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함께 노래를 불러주실 때는 마음이 짠해지기도 하지만 더욱 보람이 느껴집니다."라고 말하는 동아리 회원 이해진(여, 43세)씨. 이해진씨는 주민센터에 우쿨렐레를 배우러 갔을 뿐인데, 본인의 실력이 느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배움의 기회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동아리회장을 맡고 있는 김양희(여, 52세)씨도 "봉사는 재능을 기부하고 나누는 활동이라고 하지만 봉사자는 더 큰 감동을 되돌려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다음 달 봉사활동과 해마다 열리는 두송음악회(2016.7.28 예정)를 위한 곡목 선정과 의상 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연주를 기다릴 주민들을 생각하면 힘이 솟는다고 말했다. 배움과 봉사활동으로 따뜻함을 주고 받는 돌목 우쿨렐레. 만들어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마음으로 열심히 달려나가는 모습이 훌륭하다. 음악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꼭 이뤄지길 기대한다.

김광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secan57@hanmail.net



### 체험 기회 제공 주민 요구 조사도 진행

## 어디든 찾아가는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사하구는 작년부터 '찾아가는 평생학습 홍보·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교육을 알리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2016년 첫 찾아가는 평생학습 홍보·체험관은 5월 21일 '다대포 알뜰살뜰 봄 장터 개장'에서 운영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모던 리본 편, 나만의 향수, 가죽공예 열쇠고리 만들기 중 한 가지를 그 자리에서 배웠다. 다음 날인 22일에는 사하구에서 열린 '2016년 제8회 한마음 걷기대회'에서 찾아가는 평생학습 홍보·체험관을 운영했다.

다양한 강좌를 수료한 동아리 회원들이 직접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주민들은 찾아가는 평생학습 홍보·체험관을 이용하면서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알아가고 다양한 부스 체험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홍보·체험관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요구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평생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정보 부족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얻었다.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영역으로는 직업능력교육과 문화예술 교육이 높게 나왔다.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

### 6개 행복학습센터, 주민 맞춤형 다양한 강좌 개설 우리 동네 평생학습공간 행복 학습센터란?

사하구는 주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6개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한다. 행복학습센터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학습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센터마다 주민 중심 평생교육 전문가인 행복학습매니저가 배치되어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학습자 관리, 평생학습 홍보 역할을 하며 평생학습 담당자와 학습자 간 소통의 다리가 되어 준다. 사하구 주민들은 행복학습센터에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즐겨 보시길 바란다.

조윤진 평생학습 구민기자  
yjj078@hanmail.net

2016 사하구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안내							
신평1동 행복학습센터		방문 및 전화접수 ☎ 220-5212		신평2동 행복학습센터		방문 및 전화접수 ☎ 220-5302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다문화가족 15세대	8.27~10.15 (토) 10:00~12:00 (총 8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정리수납 컨설턴트 자격증 과정	성인 30명	6.20 ~ 8. 8 (월) 10:00~12:00 (총 8회)	신평2동 주민센터 10,000원
즐거운 삶의 활동소 실버놀이	어르신 30명	9. 1~11.24 (목) 15:00~17:00 (총 12회)	신평시랑채 노인복지관	홈 바리스타 과정	성인 15명	6. 7 ~ 8. 2 (화) 14:00~16:00 (총 8회)	신평2동 주민센터 40,000원
한 권의 책에 나의 꿈을 담다	가족 17세대	5.23~8.22 (월) 15:30~17:30 (총 12회)	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	네일아트 국가자격증 과정	성인 20명	6. 2 ~ 9.22 (목) 10:00~13:00 (총 16회)	신평2동 주민센터 180,000원 (램프별도)
엄마들을 위한 역사 문화 탐방 - 한국사교육 -	학부모 20명	9. 6~11.22 (화) 10:00~12:00 (총 12회)	동매누리 작은 도서관	무병장수와 산야초	성인 30명	6. 3~11.28 실내(20)금 19:00~21:00 야외 (6) 토 10:00~12:00	신평2동 주민센터 교재비 별도
장림2동 행복학습센터		방문 및 전화접수 ☎ 220-5302		감천1동 행복학습센터		방문 및 전화접수 ☎ 220-5422	
실버놀이 지도사 자격증반	성인 30명	6.22 ~ 9. 7 (수) 10:00~12:00 (총 12회)	장림2동 주민센터	손발 건강 마사지	성인 30명	6.10 ~ 8.26 (금) 14:30~16:30 (총 12회)	감천1동 주민센터 40,000원
ITQ 한글과정	성인 15명	6.20 ~ 8.12 (월/수/금) 16:00~18:00 (총 24회)	장림2동 주민센터	네일아트 취미과정	성인 30명	6.11 ~ 8.27 (토) 10:00~13:00 (총 12회)	감천1동 주민센터 100,000원
실버건강 리안댄스	어르신 20명	6.11~10.29 (토) 13:00~14:00 (총 20회)	지신유치원 대강당	미니 기타 우쿨렐레	성인 15명	6. 13~12. 5 (월) 19:00~20:20 (총 24회)	감천1동 주민센터 7,000원
정리수납 컨설턴트 자격증반	성인 30명	6.22 ~ 8.10 (수) 14:00~16:00 (총 8회)	장림2동 주민센터	사랑키움 오카리나 교실	성인 15명	6. 4 ~ 11.12 (토) 11:00~12:00 (총 24회)	애아원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행복학습센터 ☎ 220-4834 (*전화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대도서관 행복학습센터		방문 및 전화접수 ☎ 220-5864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는 쉽고 쉬운 한국사	성인 20명	9. 6~11.22 (화) 10:00~12:00 (총 12회)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책놀이지도사 (2급)자격증과정	성인 30명	9.22~12. 8 (목) 10:00~12:00 (총 12회)	다대 도서관 38,900
역사북아티 지도사 2급 자격증과정	성인 20명	9. 6~11.22 (화) 19:00~21:00 (총 12회)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논어 예세이	성인 35명	6.15 ~ 8.17 (수) 10:00~12:00 (총 10회)	다대 도서관
책놀이지도사(3급) 자격증 과정	성인 20명	9. 7~11.30 (수) 10:00~12:00 (총 12회)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그림으로 읽는 인문학	성인 35명	9.21~11.23 (수) 14:00~16:00 (총 10회)	다대 도서관
인문학- 가족 독서를 만나다	가족(2인) 30명	9. 3~11.19 (토) 10:00~12:00 (총 12회)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영화, 책, 수다로 풀어 보는 부모역할코칭	학부모 25명	9.21~12. 7 (수) 10:00~12:00 (총 12회)	다대 도서관
마음힐링- 나를 위한 행복의 시간	성인 20명	9. 2~11.25 (토) 10:00~12:00 (총 12회)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우리아이에게 딱 맞는 독서지도	학부모 30명	6. 9 ~ 8.25 (목) 10:00~12:00 (총 12회)	교재비 10,000원

온라인접수 : 사하구 평생학습 홈페이지 ▶ 작은도서관 ▶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온라인접수 : 다대도서관 홈페이지 ▶ 온라인 수강신청

\* 기관 시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 시항은 해당 행복학습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재비, 재료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고명옥 평생학습 구민기자(arm5013s@naver.com)